

《끝없는 이야기》 분권에 얽힌 사연

하나, 둘, 셋, 또다시 ‘큰’ 하나

예전에는 신문이나 방송 기사 가운데 종종 왜곡된 내용이 있다고 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최근 들어 이 문제에 대해 꼼꼼이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다. 왜냐하면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내가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하는 출판 관련 기사 중에 종종 지나친 왜곡이나 과장 보도가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왜 그런 기사가 버젓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어찌면 항상 어떤 이야깃거리에만 주목하다 보니 세상만사를 무조건 파헤쳐 볼 ‘문제’ 로만 간주하는 언론의 속성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다.

글_박중서

그 중 심심하면 한 번씩 지적되는 것이 바로 책의 외형에 대한 문제다. 가령 번역서의 경우, 한국 책과 외국 책을 일대일로 비교하며 “페이지를 늘려 책값이 비싸다” “여러 권으로 쪼개 책값이 비싸다” “하드커버를 씌워 책값이 비싸다” 등등 꼬투리를 잡은 뒤, 결국 “책값이 비싸니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다”는 편견을 정당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치는 식이다. 하지만 뭐든지 ‘문제’ 로 걸고넘어지는 언론의 속성을 고려해 보면, 만약 반대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페이지는 똑같은데 책값이 비싸다” “한 권으로 두껍게 만들어 책값이 비싸다” “하드커버도 아닌데 책값이 비싸다”며 또 다른 불평을 늘어놓을 것이 뻔하다.

출판사, 독자들의 이중잣대

물론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긴 하다. 대표적인 것이 번역서의 분권, 즉 책 한 권을 여러 권으로 쪼개 내는 문제다. 절대적 기준이 없어졌지만, 한 가지 원칙은 분명하다. 즉 ‘한 권짜리는 한 권으로’ 만들고, ‘여러 권짜리는 여러 권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가령 애초에 한 권짜리였던 《율리시스》는 세 권, 네 권보다는 ‘두툼한’ 한 권짜리가 낫다는 거다. 반대로 애초에 일곱 권짜리였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한 권이나 두 권, 또는 열두 권이나 스무 권보다 그냥 일곱 권으로 두자는 거다.

요즘 나오는 책들 중에는 정말이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쪼개놓은 것이 많다. 활판인쇄 때에는 작은 글



《끝없는 이야기》 차경아 옮김 | 두레 | 1979
 《끝없는 이야기》(전2권) 차경아 옮김 | 문예출판사 | 1996
 《끝없는 이야기》(전3권) 허수경 옮김 | 비룡소 | 2000
 《끝없는 이야기》 허수경 옮김 | 비룡소 | 2003

씨로도 모두들 만족했는데, 이견 불과 10여년 사이에 전 국민의 시력이 저하된 까닭인지, 너도나도 글씨를 확 키우고 행간을 늘려 '병병한' 책을 만들어 놓았다. 출판사 측에서는 "독자를 생각해서" 라지만, 어쩌면 "독자의 수준을 낮게" 생각한 까닭은 아닐까 싶다. 웬만한 두께의 한 권으로 만들어도 될 것을 기본 두 권에 여차하면 세 권, 네 권, 다섯 권까지도 간다.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뭔가 생색이라도 내려는 듯 '합본' 을 시도한다.

책에 대한 이중잣대를 고수하는 독자 측도 비판의 여지는 있다. 두꺼운 책 한 권을 읽으려면 오만상을 찌푸리지만, 정작 열 권짜리 《삼국지》는 군소리 없이 읽어치운다. 책이 너무 커서 휴대가 불편하다고 투덜거리다가도, 막상 문고판을 주면 "글씨가 작다" 고 투덜거린다. 그야말로 조삼모사가 따로 없다.

분권의 역사 보여주는 《끝없는 이야기》

미하엘 엔데의 환상소설 《끝없는 이야기》는 지난 30년 간 펼쳐진 '분권' 의 변천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책이다. 1979년에 두레에서 나온 초판본은 '한 권' 짜리였다. 그러다가 20년 만인 1996년에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개역판은 '두 권' 으로 쪼개지는 아픔을 맞이했다.

그리고 불과 4년 뒤인 2000년에 비룡소에서 정식 계약한 새 번역판은 '세 권' 으로 쪼개지는 비운을 맞이했다. 솔직히 나는 비룡소 초판본을 보고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다. 왜냐하면 《끝없는 이야기》라는 소설에서는 그 내용 못지않게 외형, 그러니까 그 책 자체도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끝없는 이야기》라는 소설에서 가장 매력적인 소재는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트리는 도구, 바로 《끝없는 이야기》라는 책 속의 책이다. 즉 《끝없는 이야기》는 독자가 펼쳐든 미하엘 엔데의 책 제목인 동시에, 그 책 속의 주인공 발타자르가 읽는 책의 제목이기도 하며, 그 책 속의 책에서 펼쳐지는 환상의 나라의 운명이 적힌 책의 제목이기도 하다.

즉 저자는 이 세 가지 책이 지금 독자들이 읽고 있는 "바로 그 책" 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이 책의 본문에서 발타자르가 《끝없는 이야기》를 처음 보았을 때, 책 표지의 제목 타이포그래피를 그대로 갖다 놓은 것도 그래서이다. 결국 "지금 여러분이 읽는 이 책, 이것이 바로 발타자르가 읽는 《끝없는 이야기》이다" 라고 주지시키는 셈이다.

하지만 저자가 나름대로 고심해 만들어 놓았을 이 장치, 독자를 순식간에 환상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장치는 책을 '분권' 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깨지고 만다. 한 권이어야만 할 《끝없는 이야기》가 두 권, 세 권으로 나뉘어버린 것이다. 이래서는 독자가 소설에 몰입할 수가 없다. 독자로선 지금 자기가 지금 읽는 《끝없는 이야기》와 발타자르가 읽는 《끝없는 이야기》가 같은 책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설령 두께를 고려해 쪼갤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차라리 세 권보다는 1부와 2부를 두 권으로 나누었어야 했을 것이다(물론 두 권짜리인 문예출판사판도 그 경계를 정확히 지키진 못했다). 어쩌면 '이동 독자' 를 고려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 역시 "애들은 두꺼운 책을 못 읽는다" 는 오래 된 편견을 답습한 결과는 아닐까.

독자들은 두꺼운 책을 기피한다?

이런 실수를 뒤늦게나마 깨달았는지, 2003년에 나온 비룡소의 제2판은 기존의 판형은 똑같이 유지하되, 원래 세 권이었던 것을 두툼한 한 권짜리 하드커버로 묶었다(덕분에 가격은 22,500원에서 20,000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제야 다시 한번 《끝없는 이야기》가 '현실의 책' 인 동시에 '환상의 책' 이라는 지위를 되찾은 셈이다.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그래도 지금은 책이 저자의 의도대로 제 모양을 갖추었으니 다행이다. 혹시나 책이 두꺼워졌다고 해서 판매량이 줄어들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독자들이 '두꺼운 책' 을 기피한다는 것은 일종의 편견이나 오해에 불과하다. '작은 글씨' 나 '작은 판형' 에 대해서도 어쩌면 마찬가지로 것이다. 두꺼운 책이 그야말로 멋대거리 없이 '쪼개져' 출간되는 것, 그리고 '독자' 의 취향을 빌미로 이런저런 변명이 나오는 것은 진실이라고 보다는 중첩된 편견의 소산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이니,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도록" 하자. ■■

이제야 다시 한번 《끝없는 이야기》가 '현실의 책' 인 동시에 '환상의 책' 이라는 지위를 되찾은 셈이다.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그래도 지금은 책이 저자의 의도대로 제 모양을 갖추었으니 다행이다. 혹시나 책이 두꺼워졌다고 해서 판매량이 줄어들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박중서 님은 에이전시와 출판사 등 출판계에서 두루 활동했으며 지금을 번역가로 일하고 있다. 역서로 《젠틀 매드니스》(공역) 《세계적 인물은 어떻게 키워지는가》 등이 있다.